

최근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

남재량(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)

- ◎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4만 5천 명 증가
 - 이는 2012년 4월의 취업자 증가폭(45만 5천 명)이나 2011년 4월의 증가폭(37만 9천 명)에 미치지 못하나
 - 2013년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며 30만 명 수준을 회복

- ◎ 고령자 위주의 취업자 증가 및 청년 취업자 감소, 제조업 및 대기업의 취업자 증가 주도 등의 현상은 2013년 4월에도 지속
 - 5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가 크게 증가(44만 8천 명)한 반면, 청년 취업자 수는 청년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(13만 4천 명)
 -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(16만 5천 명 증가) 고용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,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속적으로 둔화(18만 6천 명 증가)
 -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취업자 수가 증가(13만 7천 명)하여 고용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, 300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 수는 20만 8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침

- ◎ 고용률(59.8%)이 전년동월에 비해 0.1%p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, 부문이나 집단별로 여러 특징들이 관찰됨

- 취업자 수 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용률 증가도 50세 이상(남녀 모두)이 여전히 주도하고 있으며,
 - 청년 고용률은 청년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게 감소(남녀 모두)하고 있음
 - 남성 고용률은 변화가 없으며, 여성 고용률은 0.1%p 상승
 - ※ 여성 30~34세 고용률 증가(3.4%p)는 4월에도 계속
- ◎ 4월 고용동향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상용직의 큰 폭 증가
- 상용직 근로자가 무려 65만 9천 명이나 증가하였으며, 임시직은 20만 2천 명 감소하였고(일용직은 9천 명 증가), 비임금 근로자가 12만 명 감소
 - 상용근로자의 증가는 장기추세이나 전년동월대비 65만 9천 명 증가는 2010년 12월 이후 최대 증가
 - 상용직 증가는 제조업(18만 6천 명), 서비스업(43만 7천 명), 건설업(9천 명)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
- ◎ 상용근로자 증가와 고용의 질
- 상용직 증가를 고용의 질 개선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으나
 - 최근의 상용직 증가는 기업의 신규채용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경기부진과 고령화가 겹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 가능
 - 실제로 상용직 가운데 3년 이상 근속자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, 3개월 미만 근속자는 오히려 감소
 - 결국 상용직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 상황은 그리 밝지 못함
- ◎ 노동시장 활력 저하
- 노동시장의 유량(flow)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노동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
 - 실제로 입직자 수와 이직자 수가 2012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
 - 이러한 유량 감소 현상은 상용직의 대폭 증가가 신규채용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3년 이상 장기근속 상용직 증가에 기인하는 현상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

- ◎ 산업, 직업, 지역 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, 몇몇 부문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
 - 제조업의 경우 4개 업종(자동차, 고무 및 플라스틱, 1차금속, 전기장비)이 특히 취업자 증가를 주도
 - 직종별로 보면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(83)과 전기 및 전자관련 기계조작직(84)의 고용증가가 두드러짐
 - 지역별로 고용성과의 편차가 존재하며, 고용률의 경우 제주, 충남, 경북이 높고 부산, 광주, 강원이 낮음

- ◎ 고용 및 경기 선행지표 가운데 하나인 구인구직비율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횡보하고 있어 향후 고용상황은 불투명
 - 다만 자영업의 구조조정(고용원이 없는 경우는 2009~2010년, 고용원이 있는 경우는 2005~2008년)이 이미 상당부분 이루어졌으므로, 자영업 감소가 장기화될 것이라 예상하기는 어려움
 - 아울러 제조업의 고졸 신규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

최근 해외 고용동향

- ◎ EU의 실업률 상승, 미국의 실업률 하락이 지속되고 있음
 - 이에 따라 미국과 EU의 실업률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,
 - 이는 미국과 EU의 청년 실업률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남

- ◎ 미국의 최근 청년 실업이 다소 악화되는 모습을 보임
 - 미국의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(9%대)에 비해 크게 하락(최근 7%대)하였으나, 2013년 1분기 들어 청년 실업률이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

- ◎ EU 가운데 독일의 고용성과가 우수하며,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고용성과는 부진
 - 독일의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더 높는데, 이는 청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임
 - 그리스, 스페인, 이탈리아의 고용률은 50% 수준이며, 청년 고용률은 10% 수준에 불과함
 - ※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(2013년 3월) 55.9%,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 59.1%(2013년 1월)